

개회사



정 장 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 세계질서 재편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시급

국내정보통신사업의 대외개방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92년도에 있었던 한미통신협상에서 국내 VAN시장을 미국에 대하여 94년부터 전면 개방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통신분야 다자간 협상이 타결되므로해서 조만간 우리 업계는 무제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상황이 맞게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업계의 경우 개방화, 국제화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GATT를 대체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등장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기를 맞아 우리 정보통신업계에 패배해 있는 위기감을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겨봄으로써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곳에 모아 새로운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신정책 목표로서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화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기술개발강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무선통신의 생활화를 확정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신산업의 규제완화를 강력히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통신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서 기간통신사업의 민영화 및 경쟁확대를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개방체제로의 전환을 조속히 추

진하고 행정규제를 대폭완화 개선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와 조치들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자유시장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경영에 대한 민간의 전폭적인 참여와 자율을 허용하는 만큼 국가 장래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즈음 외신들은 GATT를 계승하게 될 세계무역기구, 즉 WTO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1일 발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촌은 아침 저녁이 다르게 급변하면서 춘각을 다투어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또다시 무역전쟁, 기술전쟁이라는 위기가 닥쳐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전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처하므로서 늦어도 21세기 초에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뜻깊은 이 자리에서 우리모두 허심탄회한 자세로 우리업계가 안고있는 고충과 문제점들을 토론진단하고 대안을 모색 토론하므로서 정부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뜻과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